‘포용도시’ 광주서 세계인들과 문화축제 즐긴다

광주시, 24일 시청서 ‘세계인의 날’… 15개국 문화·음식 체험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인의 날’(5월20일)은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제60회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며, 강기정 시장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내국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캄보디아 전통춤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유공자 표창 ▲포용도시 광주를 알리는 퍼포먼스 ▲인도 발리우드 댄스 등 식후 공연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세계 15개 국가의 놀이·음식·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30여 개가 운영된다. 몽골·베트남·고려인 전통의상, 인도 헤나타투, 캐나다 당근케이크, 루마니아 사과빵 등이 소개된다. 포토존과 함께 오후 3시부터 각국의 전통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현장을 찾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캄보디아·필리핀 대사관의 영사서비스가 제공하며, 이주민건강센터 등 지원기관에서는 현장 고충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이주민이 이날 행사에 참여하면 최대 4시간까지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현장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과 이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문화축제”라며 “광주시민의 날과 함께 열리는 ‘세계인의 날’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전통공연은 지루해? 강진아트홀 ‘판소리 판’은 다르다

판소리 다섯마당 재치있게 비틀어 요절복통 전통극

3대가 함께 즐기기에 제격… 6월 21일 오후 선보여

강진군이 오는 6월 21일 오후 3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전통예술공연 ‘광대탈놀이 딴소리 판’을 선보인다.

‘딴소리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을 통해 강진아트홀이 지원받은 우수작품 4편 중 세 번째 공연이다. 고전 판소리를 깨고 비트는 광대 거지들의 유쾌한 유랑을 담은 공연으로 엉뚱한 상상과 재치 가득한 연출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연으로 정평이 났다.

특히 강진군은 ‘3대가 즐거운 강진군 문화예술’을 주제로 오감통, 강진아트홀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어 자녀, 부모, 조부모 세대가 70분간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매칭, 국비공모에 선정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대형 우수 공연을 유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는 지금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가족들이 한데모여 시원하게 웃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이며 강진군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50% 할인, 예술인패스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제1회 ‘무등문학상’ 작품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등문학상’은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 열풍 속에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 문학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북구가 신설한 문학상이다.

공모 대상은 창작활동을 하는 전국의 작가이며 ▲대상 부문 ▲작품상 부문으로 나눠 응모를 받는다

대상 부문은 최근 3년 이내 출간되었으며 타 문학상 수상 이력이 없는 개인 작품집을 모집하며 등단 작가만 응모할 수 있다.

작품상 부문은 운문, 산문 및 평론 분야로 등단 여부에 관계없이 발표된 적 없는 창작 시·소설·수필·동화·평론 등을 접수한다.

제1회 ‘무등문학상’ 작품 공모 시작… 총상금 3천만 원

북구, 신진 작가 발굴 및 지역 문학 발전 도모

응모는 한 사람당 한 개 부문 및 분야에만 가능하며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7~8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작품상 2명(운문 1명, 산문 및 평론 1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8월 중 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0만 원, 작품상 각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작품 접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북구청 문화예술과(☎062-410-820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무등문학상이 지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 문학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앞선 3월 내실 있는 문학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무등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2025 전남 공예페스타’ 개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공예주간을 맞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5 전남 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 공예페스타는 공예인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 축제다.

‘손끝에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개막식은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나주시 다시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장에선 공예작가 14인이 나무, 섬유, 도자, 금속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실습형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전남 공예인 29명이 참여하는 기획전시전 ‘연대, 공예&도구와 만남’도 열린다. 전시전은 ‘도구’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공예의 철학적·기능적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인 ‘나는야 꼬마작가’는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에코백에 영산강 또는 십이지신(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6월 2일부터 7일까지 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이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예페스타는 단순한 전시와 체험을 넘어 세대 간 공예문화의 전승과 창의적 감성의 확산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 공예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고흥군, 무대 위에 피어난 노년의 로망과 기억

24일 토요일 4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 〈로망노망〉 상연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5월 24일 오후 4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창작무용극 〈로망(Roman)노망(老望)〉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고흥군이 주관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및 후원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창작그룹괘념치’가 제작을 맡았다.

〈로망노망〉은 노년의 삶과 꿈, 기억과 열정을 주제로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무대에서 인간 존재의 회복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무용, 연극, 음악이 결합한 다장르 창작극으로,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어나는 ‘로망(꿈)’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관객과 깊은 교감을 시도한다.

‘창작그룹괘념치’는 2019년부터 다양한 장르 간 협업을 통해 실험적인 창작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고령화, 죽음, 상실, 회복 등 무거운 주제를 유머와 환상,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 언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 티켓은 타임티켓 사이트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며, 일반인 10,000원, 고흥군민 5,000원, 청소년·어린이·65세 이상 군민은 2,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당일 현장에서는 현금, 계좌이체로도 발권이 가능하다. 고흥/박도일 기자